

후쿠시마 핵참사 일일 브리핑

3월 21일 오전10시

주요 소식

내일(22일) 일본대지진, 핵사고 피해지원과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염원하는 시민사회 공동선언

- 3월 22일 화요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 <추도 묵념> <발언>일본 피해지원 모금호소, 핵 없는 사회 요구, 공동행동기간 사업계획 발표, 공동선언문 발표 <퍼포먼스>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요구하는 퍼포먼스
- 문의: 녹색연합 녹색에너지디자인 신근정 minimu@greenkorea.org

국가 환경방사능 자동감시망 3일전 측정자료 공개돼, 실시간 정보공개 요구

- 교육과학기술부, 전국 70개소에서 5분마다 환경방사선준위 측정 결과 웹사이트에서 하루 두 번 공개
- 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 홈페이지에선 3일전 측정자료가 공개돼
- 환경운동연합 실시간 정보공개 요구

<http://iernet.kins.re.kr/>

일본 반핵단체 원자력자료정보실,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최근 논평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의 위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한다(2011년 3월 18일 원자력자료정보실)

1. 우리는, 3월 15일에 「후쿠시마 제1, 제2 원자력 발전의 이번 사고는, 원자력 발전의 설계 조건에 대해 생각할 수 없는 예상 외의 사고이며, 지극히 심각한 사태가 계속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유감스럽지만, 오늘까지 이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다.
2. 현장의 작업자들의 노력 없이는, 이 위험을 회피할 수 없다. 작업자들은 상당히 높은 방사능 노출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사태를 회피하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분투하고 있다. 우리는, 최대한 감사를 표한다.
3. 사고 이래 우리에게 「몇 킬로까지 떨어지면 안전한가」라고 하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4. 이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킬로」라고 회답하는 것은 곤란하다. 우리에게, 현상의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고, 또, 향후의 상황을 예측하는 것도 곤란하기 때문이다. 또 피난할지 어떨지는 원자력 발전으로부터의 거리나 방사선 양만으로는 결정할 수 없다. 가족구성, 생활 환경, 주위의 사람들과의 연결되어, 피난처 및 피난 수단의 확보 등, 조건은 다양하기 때문이다.
- 5 방사능은, 임산부(태아)·유아·아이에게는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분들은,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가능

한 한 멀리 피난하는 것이 좋다.

6. 멀리 피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물가운데에 들어와 바깥 공기와 접하는 것을 피하는 것, 비는 맞지 않는 것이, 방사능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는 중요하다.

7. 현재 상태로서는, 방사능이 대규모로 방출되는 사태에는, 도달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향후 그러한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다. 그 경우에는, 정부가 설정하고 있는 현재의 피난 범위에서는 불충분한 것은 분명하다.

8. 최악의 사태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태는, 원자로 수위의 저하에 의한 핵연료의 용해(멜트다운), 대규모 폭발, 사용이 끝난 연료 풀로부터의 방사능 대량 방출을 들 수 있다.

9. 정부 및 도쿄 전력은, 이러한 사태로 연결되는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해야 한다. 특히, 방사선 양의 측정, 정부 및 도쿄 전력 만이 아니고, 각 지자체나 민간도 측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누구나 용이하게 사용할 수 체제를 신속하게 구축해야 한다.

<http://cnic.jp/>

번역=김수중/자원활동가

일본, 식량에서도 방사능 오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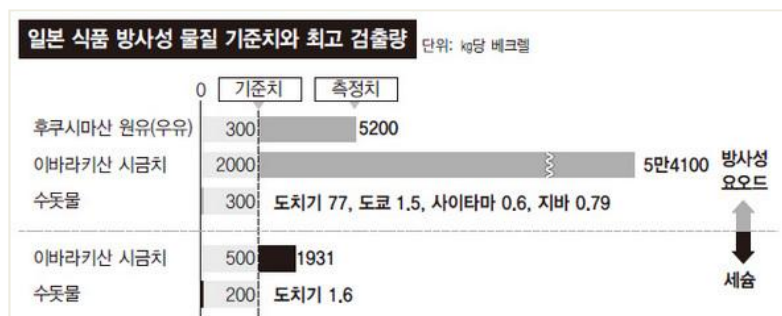
• “원전 남쪽 이바라키현의 농가에서 18~19일 생산한 시금치에서는 20일 기준치(1kg당 2000벵크렐)의 최고 27배에 이르는 5만4100벵크렐에 이르는 방사성 요오드와, 기준치(500벵크렐)의 약 4배에 이르는 1931벵크렐의 세슘이 20일 검출됐다. 지바현에서 생산한 썩갓에서도 기준치의 2.15배가 넘는 요오드가 검출돼, 도쿄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지바현에서 생산한 썩갓 90kg을 판매금지했다고 밝혔다. 요오드는 인체에 축적돼 갑상샘암을 일으키고 세슘은 근육조직을 손상시키는데, 특히 어린이에게 해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에다노 관방장관 “문제의 농산물을 1년간 계속 먹는다고 해도 우유는 CT촬영을 한번 하는 양과 같고, 시금치는 1/5회분엔 불과하다고 강조”(SBS)

• 일본 정부, 문제가 된 지역의 우유와 시금치 판매 금지 발표. 추가 판매 금지조치에 대해서는 오늘 발표 될 것으로 예측(로이터).

• 기사 발췌 및 오른쪽 이미지(한겨레 21일자)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468920.html>



20일 주요 경과

사고수습

IAEA “지난 24시간 동안 일부 진척이 있었지만, 전반적 상황은 여전히 매우 심각”

전선 복구

• 현재까지 원자로 1,2,5,6호기에 전선 연결, 곧 테스트 시스템을 시작할 것으로 보임.

영향

• 일본 환경부, 원전 반경 40킬로미터 내 수돗물 마시지 말라고 당부. 이는 수돗물에서 방사성 요오드 수치가 기준치의 세 배 이상 검출됐기 때문(교도통신). 이미 원전에서 240킬로미터 떨어진 도쿄 수돗물에서도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된 바 있음.

움직임

‘보이지 않는’ 동경전력 최고경영자

• 지난 11일 사과 발표 이후, 마사타카 시미주 CEO, 현재까지 원전 사고현장에도 모습 드러내지 않아, 최고경영자로서 어떤 책임 있는 답변 내놓지 않아 비판 여론 고조

링크

피폭 피해자 지원·조사 모금함

<http://happylog.naver.com/happykfem/rdona/H00000053051>

실시간 모니터링 · 번역

<http://cafe.daum.net/2011kfemjapan>

환경운동연합 비상대책위원회 (현재 13명)

- 위원장: 김혜정
- 정책팀: 양이원영, 안재훈, 이지언
- 모니터팀: 염형철, 강덕희, 이명현, 김현지
- 홍보팀: 김태형, 한숙영, 최준호, 신재은
- 캠페인팀: 박창재, 김보영

전화 02-735-7000

정보 및 의견 web@kfem.or.kr